[미국] 자율주행차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1]

□ 배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 기술의 발달로 기술, 산업, 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이 이루어지는 Big Blur (빅 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미래 모빌리티로서 다양한 산업에 침투하고 있으며 지난 수년간 기술적 · 제도적 발전을 이루고 있음

○ 이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체가 보험산업에 직접 진출하고, 자동차 보험 내 기존 하드웨어를 넘어 지능화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보장 수요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1] 자율주행 기술단계[2]

레벨 구분	Lv.0	Lv.1	Lv.2	Lv.3	Lv.4	Lv.5
명 칭	無 자율주행 (No Automation)	운전자 지원 (Driver Assistance)	부분 자동화 (Partial Automation)	조건부 자동화 (Conditional Automation)	고도 자동화 (High Automation)	완전 자동화 (Full Automation)
운전주시	항시 필수	항시 필수	항시 필수 (조향핸들을 상시 잡고 있어야 함)	시스템 요청시 (조향핸들 잡을 필요 X,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운전)	작동구간 내 불필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	전 구간 불필요
자동화 구간	-	특정구간	특정구간	특정구간 (예 :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특정구간	전 구간
예 시	사각지대 경고	조향 또는 감가속 중 하나	조향 및 감가속 동시작동	고속도로 혼잡구간 주행지원시스템	지역(Local) 무인택시	운전자 없는 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차로 분류

1) 맥킨지&컴퍼니 "Navigating unknowns: Auto insurance questions in a new mobility era", "Connected revolution : The future of US auto insurance" 등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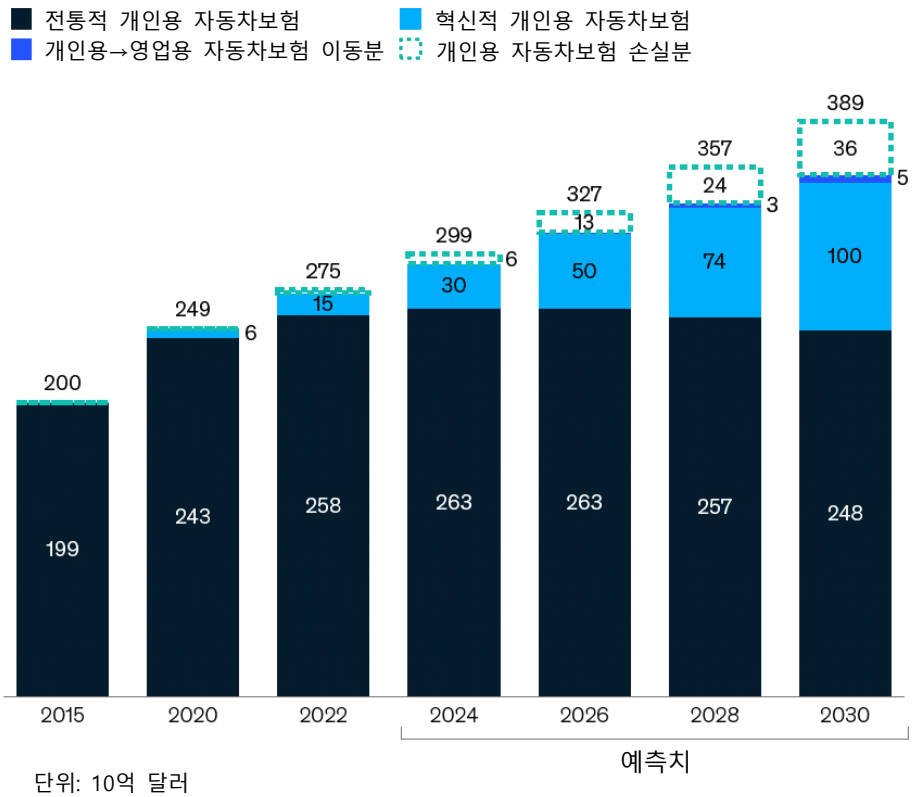
2) 국토교통부

□ 미국 자동차보험 시장 내 변화

○ 미국 업계는 2030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 총 원수보험료가 2,600억 달러의 최고점을 찍고 이후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전통적 개인용 자동차보험 상품이 하락세를 보이고, 텔레매틱스 및 자율주행차, 전기차의 담보를 주 특징으로 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과 자동차 공유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용 보험 상품이 성장할 전망

[그림2] 미국 개인용 자동차보험 시장 원수보험료 전망[3)]



3) 맥킨지&컴퍼니

□ 대응 전략

○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보편화에 따라 위험 평가와 보험료 산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전기차의 높은 수리 비용, 특유의 유지보수 요건, 배터리 수명이 고려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으로의 전환에 따라 담보는 점차 소프트웨어 보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사이버보안이 큰 리스크로 작용

* 차량의 주요 기능이 소프트웨어의 조작과 업데이트에 의해 결정되고 제어되는 미래지향적 차량 개념

○ 보험사, 완성차 제조업체(OEM), 클라우드 플랫폼, 소비자 경험(CX) 제공 서드파티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긴요

- OEM은 언더라이팅을 위한 데이터를 주요 자산으로 삼는 데이터 결합·제공자로서 부상할 전망

- 보험사는 OEM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거나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경쟁 우위 확보 필요